

2016학년도 모의논술 고사

인문계열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5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내 친구였고 여러분의 벗이었습니다. 그는 델포이*로 가서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은 신탁(神託)*을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신탁을 구했던 것입니다. 델포이의 무녀는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왜 내가 악명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탁을 듣고 ‘신의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신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고 자문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겐 크든 작든 간에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신은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일까? 그는 신이고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숙고하여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보다 현명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반증을 갖고 신에게 갈 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관찰했습니다.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렇게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이 그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현명해 보일 뿐 사실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는 그의 미움을 샀고, 그 자라에 동석해서 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내게 적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다운이나 선함을 사실상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보다는 현명하다고.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보다 약간 우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보다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와 그 밖의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델포이: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 신의 신전이 있는 곳.

*신탁: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

(나)

옛날의 학자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 스승이란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 주며 의혹을 풀어주는 자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닌데, 누가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의혹스러우면서도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혹된 것은 끝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보다 앞에 태어나고 그가 도를 들음도 물론 나보다 앞섰다면 나는 그를 따라 스승으로 삼는다. 나보다 뒤에 태어났더라도 그가 도를 들음이 역시 나보다 앞섰다면 나는 그를 따라 스승으로 삼는다.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니, 어찌 그 나이가 나보다 앞서 태어나고 늦게 태어남을 따지겠는가? 이런 까닭에 귀하다거나 천하다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



이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아! 스승의 도가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이 없게 하려해도 어려운 일이구나! 옛날의 성인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오히려 스승을 따라 물었는데 오늘날의 많은 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뒤떨어지지만 스승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이는 더욱 어리석게 된다. 성인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이가 어리석게 되는 까닭이 모두 이에서 나온 것인가!

자식을 사랑하여 스승을 골라서 가르쳐 주면서도 그 자신에게는 스승삼기를 부끄러워하니 미혹한 탓이다. 저 어린아이의 스승은 책을 주어서 읽는 법을 가르치는 자이지 내가 말하는 도를 전하고 미혹됨을 풀어주는 자는 아니다. 책 읽는 법을 모르거나 미혹이 풀리지 않는 데 대하여, 혹은 스승을 삼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작은 것은 배우고 큰 것은 버리고 있으니 나는 그들이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 한유, 「사설(師說)」-

(다)

백성 중에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은 자가 있어 그 자식에게 그 술법을 다 가르쳐주니 그자가 또한 그 재간을 자부하여 자신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다. 언제나 도둑질을 할 적에는 그 자식이 반드시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며, 가벼운 것은 버리고 무거운 것을 취하며, 귀로는 능히 먼 데 것을 듣고 눈으로는 능히 어둠 속을 살피어, 도둑들의 칭찬을 받았다. 제 아버지에게 자랑삼아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술법과 조금도 틀림이 없고 역센 힘은 오히려 나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면 무엇을 못하오리까.”

하니, 아버지도 역시 말하기를,

“아직 멀었다. 지혜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깨닫는 것 즉, 자득(自得)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아직 멀었다.” 하였다. 자식이 말하기를,

“도적의 도는 재물을 많이 얻는 것으로 공을 삼는 법인데, 나는 아버지에 비해 공이 항상 배나 많고 또 내 나이 아직 젊으니, 아버지의 연령에 도달하면 마땅히 특별한 수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니, 아버지도 이렇게 말했다.

“멀었다. 내 술법을 그대로 행한다면 겹겹의 성도 들어 갈 수 있고, 깊이 감춘 것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차질이 생기면 화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임기응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은, 자득의 묘가 없으면 안 된다. 너는 아직 멀었다.”

하였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도 들은 척도 아니하니, 아버지도 다음날 밤에 그 자식과 더불어 한 부잣집에 가서 자식을 시켜 보물 창고 속에 들어가게 하여 자식이 한참 탐을 내어 보물을 챙기고 있는데, 아버지도 밖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고 일부러 소리를 내어 주인으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 주인이 집에 도적이 든 줄 알고 쫓아 나와 자물쇠를 본즉, 전과 같으므로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자식 도적은 창고 속에 들어서 빠져 나올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손톱으로 뚫뚫 긁어서 쥐가 긁는 소리를 내니, 주인 말이,

“쥐가 보장 속에 들어 물건을 절단 내니 쫓아버려야겠다.”

하고는, 등불을 켜고 자물쇠를 끄르니 자식 도적이 빠져 달아났다. 주인집 식구가 모두 나와 쫓으니 자식 도적이 사뭇 다급하여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못가를 돌아 달아나면서 돌을 집어 물에 던졌다. 쫓던 자



가,

“도적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고, 모두 막아서서 찾으니, 자식 도적이 이 틈에 빠져나왔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하는 말이,

“날 짐승도 제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도 욕을 보입니까.”

하니, 아버지가 도적이 말하기를,

“이제는 네가 마땅히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무릇 사람의 기술이란 남에게 배운 것은 한도가 있고, 제 마음에서 얻은 것은 응용이 무궁하다. 하물며 곤궁하고 답답한 것이란 능히 사람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고, 사람의 기술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곤궁하게 만든 것은 바로 너를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요,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바로 너를 건져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만약 창고에 갇히고 쫓기는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쥐 굶는 시늉과 돌을 던지는 희한한 꾀를 낸단 말이나. 너는 곤경에 부닥쳐 지혜를 짜내고 다급한 일을 당하여 기발한 꾀를 내었다. 지혜가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 다시 현혹되지 않는 법이다. 네가 마땅히 천하를 독보할 것이다.”

하였다. 그 뒤에 과연 천하에 적수가 없는 도적이 되었다.

무릇 도적이란 지극히 천하고 악한 기술이나 그것도 반드시 자득이 있는 연후에야 비로소 천하에 적수가 없는 법이다. 하물며 도덕과 공명에 뜻을 둔 선비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 강희맹, 「도자설(盜子說)」-

[문제1-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상황을 간략히 요약하고,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자가 없다’는 신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문제1-2] 제시문 (나), (다)에서 강조하고 있는 배움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 둘의 차이와 공통점을 종합하여 진정한 배움을 위한 태도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논제에 답하시오.

1. 다음은 행동의 원인에 대한 추론과정에 관한 글이다.

(가) “했어야 할까, 하지 말았어야 할까? 나는 크리스마스에 약혼했다. 내 약혼자가 내민 반지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만약 내가 이를 거부했다면 약혼자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사이도 깨질 것임을 알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정말로 모르겠다. 반면에 나는 그를 잃고 싶지는 않다.” “했어야 할까? 하지 말았어야 할까?”라는 골치 아픈 질문은 일상 속에서 무한히 반복해서 대두된다. 갈등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양립할 수 없는 동기 혹은 행동적 충동들이 표현되기 위해 경쟁할 때 일어난다. 갈등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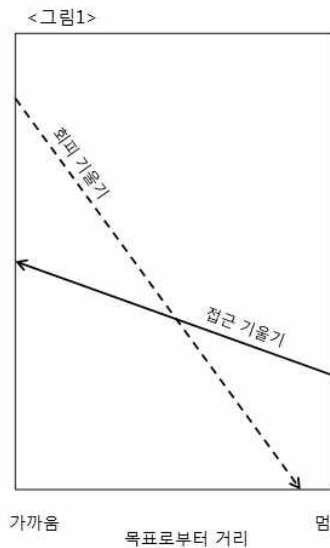
접근-접근 갈등은 두 가지 매력적인 목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이다. 물론 문제는 두 가지 목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후 시간에 여유가 생겼다. 테니스를 칠 것인가, 농구를 할 것인가? 외식을 하러 갔다. 피자를 주문할 것인가, 스파게티를 주문할 것인가? 두 개 다 시킬 여유는 없다. 세 가지 종류의 갈등 중에서 이런 접근-접근 유형은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먹고 싶은 몇 가지 음식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서 음식점에서 나와 비틀거리지는 않는다. 접근-접근 갈등에서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접근 갈등이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것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두 명의 매력적인 남자친구 혹은 매력적인 두 개의 대학 전공 사이에서 괴로워한다면, 당신의 의사결정 과정은 꽤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회피-회피 갈등은 두 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목표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두 개의 혐오스런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요구된다면, 당신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고통스런 요통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두려운 외과수술을 할 것인가 혹은 요통을 계속 지니고 살 것인가? 분명 회피-회피 갈등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갈등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능한 한 계속해서 결정을 미룬다. 예를 들면, 요통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외과수술을 미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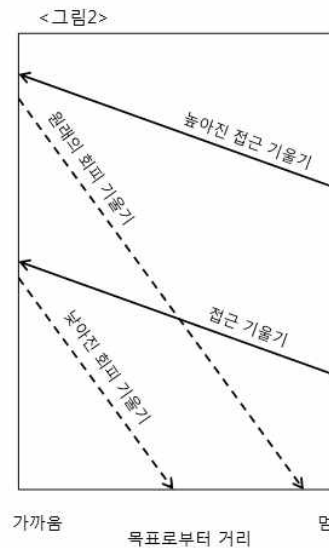
접근-회피 갈등은 매력적인 측면과 매력적이 아닌 측면을 둘 다 갖고 있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봉급이 더 많은 승진자리를 제공받았다고 하자.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 당신이 싫어하는 도시로 이사를 해야만 한다. 접근-회피 갈등은 일상적인 것이며, 그것들은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는 언제나 당신이 접근-회피 갈등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 거부를 당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실패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저축해 놓은 것을 투자할 것인가?

(나) 접근-회피 갈등은 종종 망설임을 일으킨다. 즉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망설인다. 그들은 하겠다고 결정하고는 다시 안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하겠다고 한다. 인간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오래 전에 Miller라는 학자는 쥐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망설임을 관찰했다. 그는 탈주 장치의 한 쪽 끝에서 먹이와 전기충격을 교대로 줌으로써 배고픈 쥐들에게 접근-회피 갈등을 만들어 내었다. 결국, 쥐들은 탈주 장치의 중앙 근처에서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통로의 끝에 있는 목표 상자에 접근했다가 후퇴했다가를 반복했다.

일련의 연구들에서 Miller는 유기체가 목표에 다다를 때 접근하고(접근 기울기) 후퇴하는(회피 기울기) 경향이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그림 1>에 나타냈다. 그는 회피 동기가 접근 동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Miller에 의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진 한 목표에 다다를 때, 회피 동기는 접근 동기보다 더 빨리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이것이 회피 기울기가 접근 기울기보다 더 기울어진 이유이다) 목표에 가까이 가면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충분히 멀리 후퇴를 한다면 결국 회피 동기보다 접근 동기가 더 강해지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고, 다시 한 번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가기로 결정할 것이다. 두 개의 기울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망설임이 일어난다.



<그림1> 접근-회피 기울기



<그림2> 접근-회피 기울기와 변화된 기울기

<그림 2>는 낮아진 회피 기울기와 높아진 접근 기울기의 효과를 보여준다. 회피 기울기 자체가 충분히 낮아지면 목표에 접근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접근 기울기 자체가 충분히 높아지면 목표에 접근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이에게 데이트를 청할지 망설이고 있는 친구에게 상담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그림에 따르면 데이트가 얼마나 즐거울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가능한 거부의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친구가 데이트를 신청하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목표에 다가가는 데 유리할 것이다.

[문제2-1] 제시문 (가)에서 기술한 세 가지 유형의 갈등에 해당되는 새로운 예를 들어보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0점).

[문제2-2] 제시문 (나)의 그림을 통해 접근-회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30점).